



한국재해안전협회, 신광모자지립원서 환경미화 봉사

군산시 나운3동은 한국재해안전협회 군산지부(단장 전광덕)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광모자지립원 제조 및 전지 작업 등 시설의 환경 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재해안전협회 군산지부는 작년부터 나운3동과 연계해 제조작업 지원봉사를 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립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연 3회 꾸준한 환경미화 지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회 회원 7여 명이 참석해 화초심기, 제조작업, 정원수 전지작업 등 시설의 환경을 맡김하게 정비했으며 더불어 1회 한부모가족 대상 응급상황 대처교육 실시와 동시에 생존수영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광덕 단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작으나마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남원 산내면 소재 기관, 보건소 직원 격려 힘 모아

남원시 산내면(면장 하진숙) 소재 기관들이 방역에 애쓰는 남원시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150만원 상당의 위문품(토스트 등)을 방문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은 산내면 소재 기관(이장단, 발전협의회, 노인회, 지리산농협)들이 코로나19 방역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는 남원시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양재웅 이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보건소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문품으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야간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1일 화재취약지역의 골든터임을 확보하고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삼습 정체구간인 무주 반딧불 시장에 야간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주119안전센터(센터장 공균)는 소방차량을 동원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도로상 간판 등 장애물 제거활동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등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및 화재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 스쿨존 교통안전활동 적극 추진

무주경찰서(서장 빈중석)는 2022년 상반기 초등학교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 및 지역경찰 경력을 집중배치하여 선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초등학교의 등교 시간대인 아침 오전 8시~9시(1시간), 그리고 저학년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3시(1시간)에 관내 9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노후 전기시설 무상교체 봉사 펼쳐

김제시 이웃사랑전기연구회, 10여 가구 대상 안전 점검·수리·교체 등 실시

김제시 이웃사랑전기연구회(회장 강동규)는 금구면 일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 무상교체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 활동은 금구면 금구리 소재 저소득층 1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웃사랑전기연구회 회원 17여명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노후된 전기 시설의 안전 점검, 무상 수리 및 교체 등을 실시했다.

이웃사랑전기연구회는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을 점검 및 정비로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 전기기술을 가진 봉사단체로 2003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김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200여세대 불량 전기설비 보수 및 교체, 화재와 감전사고 예방활동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김제시 저소득층 전 세대 방문을 목표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은 조모씨는 "그동안 낡은 전기 배선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했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찾아와 전기 수리를 해 줘서 고맙고 안심이 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동규 이웃사랑전기연구회장은 "금년에 방만한 마을의 저소득층 또한 전기안전시설이 취약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하여 전기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신풍동 복지기동대, 3월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신풍동 복지기동대(대장 김상봉)는 2일 복지기동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기동대원들의 봉사 정신으로 회의에 참석해 달의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새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하고 주민들의 수시 요청사업들을 접수하여 논의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이어진 세대의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논의를 통해 대원들의 단합을 이루어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신풍동 관내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다짐했다.

김상봉 복지기동대장은 "수립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보람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합시다"고 대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수곡장학회, 28명 학생에 장학금 수여

남원의 재)수곡장학회(이사장 양해석)는 지난달 26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학생과 가족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수곡장학회는 남원지역 학생 중 인성과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1월에 장학생을 모집해 2월에 장학금을 수여, 올해는 고교생 11명에게 100만원씩, 대학생 17명에게 200만원씩 28명의 학생들에게 총 4,500만원의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으며, 현재까지 924명의 남원지역 장학생에게 10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남원의 교육발전을 위해 남원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초등부와 중등부 선생님 각 1명씩을 선정 매년 '남원사랑 교육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28분의 선생님에게 해외연수비 3,8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여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도 4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양해석 이사장은 "장학금 수여학생들에게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정진과 인격도야에 매진하여 우리 고장과 국가의栋梁지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읍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

진안읍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는 3월 2일부터 성인문해교실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강한다고 밝혔다.

올해 운영 계획은 ▲생활영어 ▲줌바댄스 ▲중등검정고시반 ▲소묘기초반 ▲성인문해반 ▲우쿨렐레 ▲어린이무용교실 ▲컴퓨터자격증반 ▲탄츠플레이 등 총 9개의 프로그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안전 Tip 용접·용단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물티의 특성

용융금속은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정도까지 흩어짐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의 비산거리예

높이(m)	발전 단계	작업의 종류	불티의 비산거리(m)				풍속(m/s)
			역전대 1차 불티	역전대 2차 불티	순풍대 1차 불티	순풍대 2차 불티	
8.25	4.5	가로방향	4.5	6.5	7.0	9.0	1-1
		아래방향	3.5	6.0	-	-	
12.25	4.5	가로방향	5.5	7.0	6.0	9.5	1-2
		아래방향	3.5	6.0	-	-	
15	4.5	가로방향	4.5	6.0	8.0	11.0	2-3
		아래방향	3.5	6.0	-	-	

주) 1차 불티: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티
2차 불티: 1차 불티가 지면에 낙하여 반사되면서 2차적으로 비산하는 불티
대순풍: 바람을 쫓고자 작업할 때 시 역풍: 바람을 향하고 작업할 때

남원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가 봄철 공사 진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사장 내 용접·용단작업과 관련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용접 작업의 경우 장소의 높이에 따라 불티의 비산 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정도까지 흩어질 수 있으며, 불티가 발생할 경우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공사장은 대형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원소방서는 안전수칙으로 ▲작업자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비치 및 반경 10m 이내 가연성 물질 제거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전감독자 지정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용접 작업 후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30분이상 확인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성기 소방서장은 "공사장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용접작업 중 불티만으로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6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책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